



즉시 배포용: 12/29/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자립하라' 학생 용자 탕감 프로그램이 12월 31일에 신청을 받기 시작함을 발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새로운 '자립하라' 용자 탕감 프로그램의 신청을 12월 31일에 받기 시작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애초에 Cuomo 지사의 2015 기회 어젠다의 일환으로 발표된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에서 살고 있는 최근 대졸자들에게 최대 24개월의 연방 학생 용자 부채 경감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대학 학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부채에 짓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성공과 뉴욕주의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 중요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우리는 최근 대졸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뉴욕주의 미래에 투자하면 우리는 당신의 미래에 투자할 것입니다."

연구들에서 학생들이 대학 학비를 납부하도록 돕는 것이 졸업후 그들의 성공을 확보하는데 긴요함이 여러 번 밝혀졌습니다. 부채를 안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작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집을 살 가능성이 더 작으며, 학생 용자 체납의 결과는 사람이 자기 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의 [소득에 따른 납부](#) 용자 상환 프로그램을 보충하여 뉴욕주에서 살고 있는 유자격 대졸자들이 졸업후 첫 2년 동안 학생 용자금에 대해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도움을 제공합니다.

자격이 되려면 지원자는 뉴욕주에 위치한 대학에서 2014년 12월 이후에 학부 학위를 따라 하고, 조정 총소득이 50,000 달러 미만이며, 연방 정부의 소득 기준 상환 계획 또는 소득에 따른 납부 계획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혜자는 자신의 월 학생 용자 상환액에 해당되는 납부금을 최대 24회 본인 대신 납부받게 될 것입니다. 신청은 년중 받습니다.

이미 2015년 졸업반의 2,500여 졸업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고등교육공단을 통해 등록하였습니다. 2020년에 완전히 시행되면 24,000여명의 최근 졸업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UNY 학생회 회장 겸 Binghamton University 학생인 Thomas Mastro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립하라' 용자 탕감 프로그램은 SUNY 졸업생들이 학생 용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추가적 재정 부담을 지기 전에 뉴욕주 경력에 안착할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SUNY 학생회는 이 혁신적 프로그램을 지지하여 자랑스러우며, 우리는 모든 적격 학생들이 자격이 될 때 신청할 것을 장려합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거나 신청하려면 hesc.ny.gov/GetOnYourFeet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